

나를 짓누르는 성폭력에 반기를 든다

가끔 나를 짓누르는 무서움에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다.
 처음 보는 선배,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일상 공간인 과·동아리 방에서 여성비하적 발언이 터져 나올 때,
 듣고 싶은 수업에서조차 나의 성정체성이 웃음거리로 전락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의 불편함을 안으로만 삼키고 있는 내가
 무기력한 내가 밉다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미워할 게 아님을 알면서 받은 나의 힘을 통해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무서움에 소리칠 수 있는 힘, 이것들을 떨쳐버릴 힘을 기반으로 하여
 나와 그녀들을 짓누르는 '성폭력'에 대항하고자 한다.
 술자리, 과·동아리 방, 강의실 등의 공간이 '그들'만의 공간이 아닌
 '나'의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짓누르는 성폭력에, 반기를 들어보자!



illustrated by 권신아

Drinky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

20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문정의술 · 황김유나 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몽|

열매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지기를
꿈꾼다

총여학생회 정후보

문정의솔_자몽 (법학과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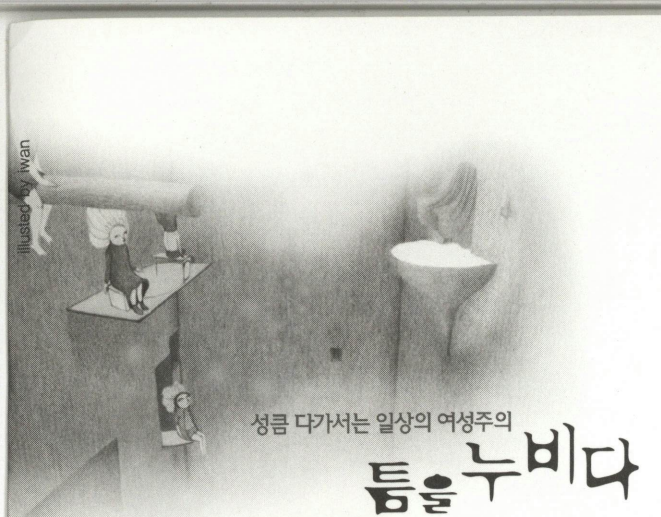
- 2005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법헌 3반 여성주체 활동
36대 법과대학 학생회 선거 <W> 선본원
- 2006년 36대 법과대학 학생회 <W> 여성위원회
2006 법과대학 대동제 <달콤한 5월, 살벌한 일상>기획단
제 9회 여성제<여성, 욕망에 입을 그리다>기획단
19대 총여학생회 선거 <Inside OUT> 선본원
- 2007년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 홍보국장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그만 곤란하길 바라>기획단
2007 레즈비언 문화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기획단

일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학점과 취업 스트레스,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놓여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한 일상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영성하게 짜여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같이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일상에 균열을 내는 경험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견고하지 않은 그 일상의 틈바구니를 휘젓고 다니며,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가
당신에게 말 거는 이유입니다.



illustrated by 육심원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

틈을 누비다

1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에 성큼 다가서다.

- 과·반, 동아리, 학회 등 일상 공동체에 문을 두드리고, 세미나의 형식을 통해 여성주의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 일상생활 공동체의 연례행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안의 문제의식을 여성주의적으로 접근하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2 나를 짓누르는 성폭력에 반기를 들다.

- 강의실 언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의 평가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확충되는 방향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강의평가공개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 OT, 새터와 농민학생연대활동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활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반성폭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 이성애 중심주의의 촘촘한 억압에 균열을 내다.

- 탈이성애중심주의운동팀을 꾸려, 이성애중심주의의 폭력을 폭로하고 그의 부당함을 학내에 알려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겠습니다.
- 학내 성소수자 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만들어 외부 성소수자 단체와 함께 연대를 지속하겠습니다.

4 보이지 않던 여학생 교육권, 목소리를 내다.

-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수 언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수 반성폭력 교양 이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여성 전용 체육 수업을 확대하고, 여성 교수의 임용을 촉구하겠습니다.
- 더불어 여타의 여학생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과 지지로써 담론을 생성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5 나와 그녀의 닮아있는 투쟁을 위하여

- 학내외 주요이슈에 대하여 학내 구성원들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학내 선전과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하겠습니다.
- 여성주의 이슈에 대하여 학내 공론화에 앞장서고, 직접적으로 연대하고자 합니다.

6 틈을 누비는 우리들의 축제!

- 다양한 이슈와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제 선정을 통해, 각자의 자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성주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즐거운 여성주의적 에너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여성주의 활동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개인, 또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쳐려 합니다.

7 여성주의로 노는 여성주의 놀이터

- 여성주의를 공유하며 서로 이해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콘텐츠를 모색하고, 그로써 한층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가려 합니다.
- 즐거운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문화 생산물로 만드는 여성주의자들을 지지하며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주의 자치도서관 페미니리를 확충하고, 페미니리티를 만들어 다양한 여성주의 이야기를 만드는 장을 열겠습니다.

총여학생회 부후보

황김유나 (국어국문학과 2학년)

|유나|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나

2006년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입학
철학 8반 여성주의 학회 〈보자기〉 활동
06년 철학 8반 농활대 여성주체 활동

2007년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 사무국장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그만 곤란하길 바래〉 기획단
2007 레즈비언 문화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기획단
07년 철학 8반 농활대 여성주체 활동

